

“미세먼지 없는 세상 위해” 현대車, 3만명 기부자들과 지구 19바퀴 달려

80일간 ‘아이오닉 롱기스트 런’ 캠페인

현대자동차가 3만여명의 기부자들과 함께 지구 19바퀴를 달렸다.

현대차는 지난 10일 부산 기장군 현대차 드림폴파크에서 열린 ‘아이오닉 롱기스트 런 페스티벌’을 끝으로 사회공헌 러닝 이벤트 ‘아이오닉 롱기스트 런’을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이 행사는 미세먼지 발생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공유하고, 친환경 자동차 ‘아이오닉’과 함께 살기 좋은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달리면서 사회공헌도 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연계 러닝 캠페인이다.

지난 8월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80일간 진행된 아이오닉 롱기스트 런 캠페인에는 총 3만여명의 기부자들이 참가해 약 77만km의 거리를 달렸다.

특히 올해부터는 캠페인 전용 애플리케이션의 소셜 기능을 강화해 다른 참가자들과 ‘러닝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함께 달릴 수 있는



지난 10일 부산 기장-현대차 드림폴파크에서 열린 ‘아이오닉 롱기스트 런 페스티벌’에서 7km 단체 러닝 참가자들이 출발선에서 힘차게 스타트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그룹 러닝’ 플랫폼을 마련해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에는 캠페인 참가자 중 1만600여 명이 참석해 캠페인 참여 경험을 공유했으며, 페스티벌 참가자들이 모두 함께 달리는 7km 러닝과 가수들의 콘서트를 비롯해 다양한 친환경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롱기스트 런 페스티벌 참가자 중 200명을 모집해 오는 17일 인천 제2수도권 매립지에 위치한 ‘아이오닉 포레스트’에서 참가자들이 직접 나무를 심고 본인이 심은 나무에 이름을 달 수 있는 ‘아이오닉 포레스트 나무 심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곳곳에 ‘제 2 양진호’



기지수첩

최신웅
(정책사회부)

문제는 노동부에 접수된 사업주의 노동자 폭행 사건은 2014년 204건, 2015년 216건, 2016년 280건, 2017년 360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갑질은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직원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는 영기적 행각을 강요하는 모습에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받았을 상처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우리 사회의 갑질은 양과 꺾질처럼 벗기고 벗겨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부터 시작된 대한항공 사주 일가의 갑질, 한화그룹 셋째 아들 김동선씨의 술집 종업원 폭행 등 재벌 갑질부터 지난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사회 각 분야의 미투피해 사례 등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들은 일상의 갑질 문화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다.

특히,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직장 내 갑질 피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폭행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으로 올해 1~8월 노동부에 접수된 사건은 515건에 달했다.

사업주를 포함한 사용자의 노동자 폭행으로 접수된 사건도 2014년 393건, 2015년 391건, 2016년 538건, 2017년 649건으로 2015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사용자의 노동자 폭행으로 접수되는 사건이 늘고 있지만, 노동부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은 소수에 불과해 실제 처벌받는 사례는 적다는 점이다.

노동부는 이를 두고 노동자가 사용자 폭행으로 진정을 제기하고도 합의 등을 거쳐 이를 취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갑질을 근절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 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최근 고용판화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은 더욱 약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악용해 갑질을 일삼는 사용자, 특히 노동자에 대한 폭행만큼은 더욱 엄중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grandtrust@metroseoul.co.kr

삼성SDI 독거노인 성금 마련 ‘모과청 만들기’

삼성SDI는 지난주 경기도 용인시 기흥 본사에서 지역 독거노인의 겨울나기 성금 마련을 위한 모과청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삼성SDI 울산사업장과 기흥 사업장 등에는 약 150여 그루 모과나무가 자라고 있다. 임직원들은 약 1500여개의 모과를 수확해 300명

의 모과청을 제작, 약 2주간의 숙성 기간을 거쳐 다음주 임직원들에게 판매할 계획이다. 회사는 임직원들이 구매한 금액에 매칭 그랜트 형태로 기부금을 기획할 예정이다.

봉사활동에 참가한 삼성SDI 마케팅팀 조영원 대리는 “작은 봉사이지만 우리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삼성SDI 기흥본사 임직원들이 모과를 수확하고 있다. /삼성SDI

김유진 기자 ujin6326@

오늘의 운세

11월 12일 (음 10월 5일)

http://www.saju4000.com

- 쥐** 48년생 뒤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 60년생 말은 하기 쉬우나 주위 담을 수 없다는 걸 명심. 72년생 남의 말은 사흘을 가지 않으니 기다려라. 84년생 희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
- 소** 49년생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자. 61년생 보석은 마찰 없이 빛날 수 없고 인간은 시련 없이 성공할 수 없다. 73년생 꽃이 아름다운 건 잘해야 열흘. 85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지출하게 된다.
- 호랑이** 50년생 자신을 이기지 않고는 한 발자국의 진전도 없다. 62년생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 착하게 살자. 74년생 번개가 치니 이제 곧 천둥소리로 들릴 것. 86년생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
- 토끼** 51년생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오는 것이니 조급해하지 마라. 63년생 최선의 해결책은 타협과 양보. 75년생 명석이 깔렸으니 최선을 다해서 일을 마무리. 87년생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 말을 실감.
- 말** 52년생 눈앞의 실속을 챙기다 보면 큰 이익을 놓치게 된다. 64년생 구설수를 조심하고 특히 동료와의 대화에 주의. 76년생 가족이라도 공과 사는 분명히. 88년생 남의 허물을 지적하면 내 허물도 드러난다.
- 뱀** 53년생 새로운 인맥으로 유익한 정보를 얻어 이익. 65년생 배우자의 고집으로 난감한 하루를 보낸다. 77년생 변화가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나가라. 89년생 재물로 인한 갈등이 생겨도 나에게 유리한 날.

- 말** 54년생 닭띠, 개띠와의 거래가 잘 이루어진다. 66년생 고목에 꽃이 피었으니 좋은 일이 있겠다. 78년생 맘에 안 들어도 내가 낳은 내 자식인 걸 어찌겠나? 90년생 직장에서 아침부터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
- 양** 55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이 허전하고 인생이 서글프다. 67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오늘은 자중. 79년생 마른 눈에 물들어 오듯이 일이 술술 풀린다. 91년생 비빌 언덕이 절실히 필요하다.
- 원숭이** 56년생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시작을 해 보자. 68년생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니 겸손하라. 80년생 노란색이 행운을 가져오니 기분전환이 된다. 92년생 약점은 가족에게도 말하지 마라.
- 닭** 57년생 기쁨과 근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 마음먹기 나름. 69년생 성공의 기미가 보이니 적극적으로 행동하자. 81년생 이성의 유혹이 있는 날이니 주의. 93년생 힘든 일은 부모님과 상의해서 결정하라.
- 개** 58년생 과대포장은 상대를 기만하는 행위. 70년생 내가 먼저 믿어야 상대방도 설득시킬 수 있다. 82년생 두드러진 열릴 문이니 힘껏 두드려라. 94년생 눈치가 빨라야 절에 가서도 새우젓 얻어 먹지 않겠는가.
- 돼지** 59년생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니 덩달아 내 마음도 상쾌. 71년생 희로애락을 얼굴에 함부로 나타내지 마라. 83년생 순풍에 돛대배 가듯이 순조로운 하루. 95년생 한밤중에 비단옷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격.



김상회의四季

하루의 시작을 무엇으로

여러분들은 하루를 무엇으로 시작하시는가. 어떤 이들은 아침운동으로 하루의 문을 열 것이고 어떤 이들은 새벽기도나 아침 명상으로 또 하나의 하루를 시작할 것이다. 필자는 대략 생각하기에 2017년 말인지 즈음부터 총정리 사무실 앞마당에 날라드는 참새들에게 모이를 뿌려주는 것으로 이른 아침을 시작한다. 늘 그러하듯 새벽 기도를 마칠 때쯤 되면 어김없이 짹짹거리며 참새들이 방문을 알리는데 참새소리에 대문을 열어 아침인사를 나누는 것이다. 잘 잤냐고 물으며 쌀 톨들을 가지런히 뿌려준다. 이제는 당연한 일상이 되었다. 어느 순간부터는 저렇게 작은 존재들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에게 위안을 주고 기다림을 주었다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진다. 그동안 살펴보니 왔다 갔다 하는 참새들의 수를 합치면 도합 이백 마리쯤 되는 것 같은데 왔던 참새들이 서너 번 또 오는 것 같기도 하다. 어떤 참새들은 옆에서 지켜보다가 제대로 얻어먹지도 못하는 참새도 보인다. 그래서 모이를 여기 저기 방향을 달리하여 주면서 무리들이 그래도 잘 챙겨 먹는지 가능해한다. 인생에 좋은 반려가 있다면 반드시 사람만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리라. 왜냐하면 어느 순간 필자는 다가가 만지지도 못하며 대화도 제대로 나누지 못하는 그 참새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필자의 자식이었던 김산이와 김별이가 떠난 후, 그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는 존재들은 다름 아닌 참새들이 되어주고 있다. 이제사 필자의 뇌리를 스치는 것은 김산이와 김별이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그리운 엄마를 떠나기 전부터 마음의 친구가 되기를 바라며 참새들을 보내 준 것만 같다. 등잔 밑이 어두웠던 게다. 명리학으로 남의 운명을 예측하고 조언을 주는 일을 업으로 가진 필자가 정작 사랑하는 인연이 준 메시지를 읽지 못하고 있었다니.. 사주명리학에서도 ‘길신(吉神) 희신’(喜神)이라는 용신(用神)이 있다. 운세에 힘을 주고 숨통을 주는 작용을 한다. 요즘 필자에게 있어 사무실 앞 참새들의 방문은 김산이와 김별이가 보내준 마음에 행복을 주는 용신이 되고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6	7			
4	3			8			1	7
		7				9		
			7		5			
		1	2		8	3		
	4							2
	7	5		2		1	4	
		6				8		
3			9	7	1			5

		1				2	6	
8						6		4
2				7				
	8	9		4				
	3	5				4	1	
			6		3		8	
					9			2
4		2						7
	2	3				1		

스도쿠 정답								
5	9	2	1	4	6	7	8	3
6	4	8	7	5	3	9	2	1
3	7	1	9	2	8	5	4	6
1	2	4	3	6	9	8	7	5
9	5	3	8	7	2	1	6	4
8	6	7	5	1	4	3	9	2
7	8	6	2	1	4	5	9	3
4	1	9	6	8	5	2	7	3
2	3	5	4	9	7	6	1	8
6	7	1	4	9	8	3	2	5
4	5	9	1	3	2	8	6	7
7	8	5	6	7	4	1	9	3
5	8	6	3	1	9	2	7	4
9	1	7	2	8	4	5	3	6
3	4	5	6	9	7	8	1	2
1	6	5	8	4	7	9	3	2
7	4	2	9	3	1	6	5	8
8	9	3	6	7	5	4	2	1

문제 제공= 보너스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중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창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100206 2002년5월28일 제407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0181호